

우울했던 목포 경기...내년도 '고난의 해' 될 듯

올 4분기 경기지표와 내년 1분기 전망

올해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경기는 한마디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여파로 지역경기도 함께 침몰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소비자 심리가 위축돼 서비스업과 음식·식료업,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업계에서는 "IMF 시절에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라는 한숨쉬는 탄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목포지역 경기는 사실상 조선경기와 선장경기에 좌우될 만큼 의존도가 높다. 조선분야는 그간대로 선전한 반면 선장경기는 해양경비안전서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중국 어선의 무차별적인 불법 조업과 어구 철도 등으로 인해 참조가 어획고가 감소해 지난해 대비 90% 선에 머물렀다. 이에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전경진)가 밝힌 올 4·4분기 경기 지표와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가 내놓은 내년 1·4분기 경기전망을 살펴봤다.



대형 선박을 건조중인 현대상호중공업 도크. 조선업계는 올해 신규 선박수주 감소에 따라 내년 작업량 확보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라한 올 경기성적표=최근 서남권 경기는 4·4분기 들어서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부문: 최근 들어 제조업 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조선업체들이 주주한 선박의 하청물량이 발주되면서 대불산단의 블록 제작업체의 생산이 증가해 산단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제조업체들은 작업물량 확대로 올해 생산은 양호했으나 채산성 악화로 체감경기가 부진해 올해 신규수주 감소에 따라 내년 작업량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비제조업은 다소 회복단계이나 목포시 대형 소매점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체감경기 회복 지연, 연안 여객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수요 부문: 지역 전반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취업자가 증가해 소비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설비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이 기존 설비만으로도 늘어난 작업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최근 채산성이 악화되고 내년 작업량 확보도 불확실해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은 기저효과와 선박 인도 등으로 3·4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향후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익성도 다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부문: 고용은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올 가을 신규채용을 통해 업체들이 인력을 확충했으



목포 최고 상권을 자랑하는 평화광장 인근의 커피 전문점 거리. 한 블록에만 무려 8개의 커피 전문점이 입성해 있다. 올해 매출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조선·수출 선전 속 신규 수주 감소·소비 위축 내년 내수침체 장기화·환율 불안정 등 먹구름 예고

나 일부 우량업체를 제외하고는 취업자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으로 기술 인력에 대한 구인난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 및 주택가격: 목포시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지속돼 안정세를 보였다. 서비스 물가는 오름폭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 주택가격은 매매와 전세 모두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향후 주택가격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대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목포항 화물 물동량: 지난 2012년 이후 감소하던 목포항 화물 입출항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출항 물

량이 늘면서 1·4분기 27.7%, 2·4분기 12.8%, 3·4분기 37.9%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조선업체에서 3·4분기 중동으로 플로팅 도크를 인도하면서 출항 물량 증가에 일조했다. 또 목포항을 통한 입항은 석유정제품, 시멘트 유입이 감소하고 차량용 부품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내년 경기 전망은=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는 3.8%로 예상하고 있어 사실상 내년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

이다. 게다가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것이라는 선부론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 경기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0개 기업 가운데 6.6개 기업이 현 경기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해 지난해(43.5%)보다 크게 늘어났다.

목포상의는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유가와 환율 등 대외변수가 불안정하면서 서남권 기업들의 내년 1·4분기 경기도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상의에 따르면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DI)가 '82'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전망지수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전분기와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BSI를 세부 항목별로 보면 매출액(65), 영업이익(78), 자금사정(81), 생산량(86) 등의 순으로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서남권 기업들은 내년도 1·4분기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외변수들 ▲중국 경제 둔화(25.5%)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24.3%) ▲엔저 장기화(14.5%) 순으로 꼽았다. 가장 큰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판매부진(28%), 환율불안(22%), 자금난(19%) 등의 순으로 응답해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고규석·김준석기자 yousou@

목포시 역사현장서 새해 시무식 눈길

목포진 역사공원 현판 제막식 후 열기로

목포시가 새해 시무식을 역사현장에서 갖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시는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목포진 역사공원에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진(木浦鎭) 역사공원' 현판 제막식을 마친 후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에서 2015년 시무식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무식은 통상적으로 시청에서 가졌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선조들의 흔이 깃든 현장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배경에는 새해를 역사의 현장에서 목포진에서 의미있게 내딛겠다는 박홍률 시장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또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현장행정에 대한 박 시장의 메시지도 반영됐다. 지난 1439년(세종 21년) 4월 설치됐던 목포진은 전라수영의 5개 만호진 중 하

나로 조선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시는 1895년 고종 칙령에 의해 폐지됐던 목포진을 지난 1991년 6월 목포 만호진 복원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지 22년 만에 목포진 객사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만호진은 만호동 1-56번지 일원 부지 총 8700㎡에 복원된 만호진은 객사 1동과 부대시설인 내삼문, 홍살문, 전통담장 등을 갖췄다. 목포진 복원조성 완공과 함께 결릴 현판은 목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 유전 서종견씨가 글씨를 썼으며, 현판에는 목포의 관사를 뜻하는 '목포지관'이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박 시장은 "역사의 현장에서 실시되는 이번 시무식이 민선 6기의 2015년을 의미있는 한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 장애인콜택시 위탁단체 선정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대표 박일남)가 목포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단체로 선정됐다. 목포시는 최근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단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실시했다. 위원은 시의원 2, 변호사 1, 교수 2, 차량전문가 2, 공무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신청서를 접수한 5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적합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적합성 ▲사업비 집행 및 예산운영계획 등 4개 항목, 20개 세항에 대해 서류 심사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전남 지

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는 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앞으로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단체 선정공고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인 1·2급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내 최초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목포시 장애인연대와 민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지난 7년 동안 운영해 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대-광주비엔날레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양해각서

목포대학교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학장 고창훈)은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대표이사 정동채)와 최근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지역문화예술 발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각종 전시회 및 행사 상호 공유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에 힘쓰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목포대 고창훈 학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문화·예술분야 맞춤형 교



목 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우리를 노래하자!
세계를 춤추자!!

함께여는 강강술래 놀이치유 학교 및 축제

▶주 최: 해남군
▶주 관: 고구려대학 산학협력단
▶목 적: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를 전승 보존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으뜸인 해남우수영강강술래에 담긴 놀이와 치유 요소를 연극놀이, 무용예술, 운동건강, 심리상담 장르와 결합해 문화콘텐츠로 제작 보급하며 동시에 다양한 교육주체들을 찾아 함께 여는 축제 및 놀이치유 교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안내

명 칭	운영일자	지원프로그램	장 소
해남 힐링! 강강술래 축제	2014.12.28.(일) 17:30~18:40	어린이놀이형강강술래 청소년놀이형강강술래 성인놀이형강강술래 노인놀이형강강술래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목포정명여자중학교와 함께여는 놀이치유 학교	2014.12.29.(월) 09:30~13:30	강강술래무용예술프로그램 강강술래연극놀이프로그램	목포정명여자 중학교 대강당
나산중·고등학교와 함께여는 놀이치유 학교	2014.12.29.(월) 14:00~18:00	강강술래무용예술프로그램 강강술래연극놀이프로그램	나산고등학교 대강당

▶진행 및 연락처: 고구려대학 산학협력단
전화 061-330-7432 / 010-2603-1639 팩스 061-330-7322